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7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9-27
2020 년 09 월 27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0112751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0112751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09 월 27 일

차례

1. [명운을걸었으면' 진짜로' 걸어주길]	3
2. [위로부터의차별규제가아닌아래로부터의차별타파를]	3
3. [이런다고하나가되지않을것이다]	4
4. [최소한죽음은평등해야하지않은가]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6792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n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
idxno=40170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92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nidxno=401707)

1. [명운을 걸었으면' 진짜로' 걸어주길]

더불어민주당대표이낙연씨가개천절집회에대해서경찰의명운을걸고공권력이살아있다는것을알려달라고'준엄한명령'을내렸다. 개천절집회가일어나게된다면코로나-19 사태의방역에있어서구멍이뚫릴가능성이높다는이유였다.

경찰의명운을걸고공권력이살아있다는것을보여달라. 이러한말을우리는몇번들어왔다. 과거여러시위들을진압할때, 버닝썬사태에서수사를할때등. 경찰그스스로가, 아니면그들을통제하고지배하는국가권력은경찰의명운을건다는말을수차례해왔다.

개천절집회. 물론거진백색테러와같은형태이다. 그들이할이야기는충분히예상이간다. 중복, 빨갱이, 사회주의자, 친중, '자유민주주의'등. 수많은극우적언행과파쇼적행태가오갈것은충분히예상할수있다. 그러나국가권력과경찰의그준엄한공권력이란것이그들을진압하고그들의시위를이래저래라할당위가있는것인가?

그들국가권력은인민의힘으로파시스트들을분쇄하고제재할힘과사고방식을어떻게든억제하면서, 어떻게든공권력의준엄함과그신성함에정당성을부여하고있다. 그들국가권력은방역과시중에의거한수많은일들을하나둘씩확대해나가며국가이익, 국가권력의수호를위해인민의자유를억압할명분을이렇게핑계를대가며하나둘만들어가고있다.

아, 그위대한이름공권력, 경찰. 당신들이진정으로이번개천절시위에명운을걸고이번개천절시위에모든것을걸었다면, 파쇼세력이집회를강행한경우스스로해체되는모습을보여주기를바란다. 당신들이약속하고당신들이선언한바이다. 언제까지추하게물고늘어질텐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artid=202009220947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20947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

2. [위로부터의차별규제가아닌아래로부터의차별타파를]

차별금지법이발의이후로격론을이어가는가운데서올키어문화축제가저번금요일부터진행중이다. 불과수십년전좌파집회에서조차내쫓겼던현실과비교하여나아졌다고보는시각도있으나한국사회에서성소수자에대한심각한차별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성소수자들은이성애자부부라면누릴수있는사회보장이나보호권리를박탈당하는등제도적차별은물론이며사회적으로또한 2020 년에들어서도여전히남아있는현

오와 차별문화에 의하고 통받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은 정부기관의 보수성과 야만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적인 공포감을 보였던 순대 입학 거부 사태는 세대를 불문하고, 심지어 페미니즘이 데올로기를 내걸고 나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성소수자에겐 견딜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현존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걸어지고 있는 희망은 이해되지만 차별금지법에 과한 기대를 걸고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성소수자 해방의 수단으로서, 정부라는 외적 권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대로 이 권위가 이전부터 현재까지 성적 지향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하는데 사용되어 온 도구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군가의 자유를 부정할 권위는 언제든지 자유의 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의회를 통한 성해방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이다. 그저 혐오자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사회의 의식이 바뀌고 성소수자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 법안이 입법된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변화일 뿐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기에 사회기저에 깔려 있는 혐오의식은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법이 아닌 우리의 삶과 생활속에서 진실로 해방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개인이 차별을 타파하고자 행동에서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한 연대의식으로 단결했을 때는 저위의 가장 억압적인 정부와 법안조차도 해방된 의식의 파도속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0 주년을 맞아서 여전히 차별은 공공연한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성소수자 해방을 이루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의식의 변혁을, 사회혁명을 성취해야 한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89.html

3. [이런다고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4 일, BBC 는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군대식의 교육 훈련' 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아나키스트 연대가 꾸준히 비판해 온 중국의 소수민족 말살 정책의 목록에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해야만 하는 가 싶어 우울감을 감출 길이 없다.

물론 중국은 이것이 티베트 지역의 진보 및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보고서에는 '업무규율, 중국어, 업무윤리' 등으로 구성된 이프로그래밍 교과목은 '일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고, 할 업무 내지 못하는 태도를 바꾸는데 목적' 이 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게으른 사람들을 제

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왜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힘으로 빼앗아 놓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의 일하기를 강요하는가? 이것이 중국의 '공산당' 이 정녕 희망하는 일인가? 공산당이 전제 군주들의 구빈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민들을 강제 노동하게 만드는 것을 찬성하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공산당 따위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중국 공산당은 지금 당장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 온 이들의 결말은 늘한결 같았다. FREE HONGKONG, FREE TIBET, FREE UYGHUR 다, 더러운 파쇼 쓰레기들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966>

4. [최소한 죽음은 평등해야 하지 않은가]

중대본이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다른 것들은 그러려니 하다가 질겁한 것이 있었다. “집에 계속해서 5~7 일 동안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민간 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을 개방” 하신단다. 하나만 묻고 싶다. 그러니까,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국공립 시설에서 일하는 대민 노동자들 만 영웅적으로 죽으라는 뜻인가.

나랏돈을 받으며 일하니 그럴 때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랏돈도 평등하게 주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명절 상여금은, 정규직 공무원의 5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민 업무를 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정부가 앞장서 죽으라고 내미는 것은,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들이다.

인천 국제 공항의 비정규직 공무원 전환이 그토록 불공정하다고 말하던 공정이들과 정치꾼들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 5분의 1 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인민을 대표하여, 앞장서 죽는 것이 당신들의 공정인가.

삶에서 불평등할 수는 있어도, 죽음에서까지 불평등을 조장하지는 말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3706.html>